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실체적 흠결 있었다”

현재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통상 국무회의와 달라” 진술
“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해”
윤, 한 총리 신문때 자리 비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는 질문을 받아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현재 변론에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해 판단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는 것을 본 사실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해당 문건을 자신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회 측이 계엄 직전 국무회

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는 자신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묻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라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해서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거대야당의 전횡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이른바 '졸탄핵'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했다고 판단이 났을 때) 탄핵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남은 국무위원 중) 두 사람만 일이 있어서 아웃(out, 직무정지)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진다"며 "제가 정치권에도 '이 정도 심각하다'고 몇 번 말했는데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고 현재 의결권을 가진 국무위원은 15명이다. 다만 '개의 정족수'(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구성원 21인

의 과반수)는 11명이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극단적인 입법독재 전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묻는 윤 변호사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라고 답했다.

쌀값 급락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라는 것은 견제·균형을 통해 최선의 지혜·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재의요구는 과거 정부가 행한 재의요구를 합친 것보다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헌법 및 법률(에 부합하고) 미래를 위한 국회의 입법과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입장했다가 한 총리의 신문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웠다.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까지 증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 구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퇴장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중앙라이즈센터 “라이즈체계 성공 협력”

추진현황 점검·애로 청취

중앙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위원회와 광주라이즈위원회가 라이즈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중앙라이즈센터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라이즈 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앙라이즈센터는 올해 라이즈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추진현황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자체와 대학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지역-대학 함께업(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담은 '광주라이즈 시행계획'을 공유했다.

앞서 광주시는 교육부 '라이즈 기본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 국비 216억7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라이즈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대학 측은 라이즈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공급했던 라이즈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 정주 취업을 등 성과지표 측정 범위와 방법 등을 질문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항일독립유산' 문화유산 지정 추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 역사적 자긍심 고취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 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항일독립유산의 문화유산 지정 추진은 항일독립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것으로, 도는 해당 유산의 발굴 및 기록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신적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

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열이 담긴 항일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월31일까지 시군, 도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항일독립유산 지정가치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토위원회에서는 항일독립유산을 항일유적, 항일시설, 독립유물로 구분해 조사·발굴하고 이를 도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지정검토·심의하게 된다.

현재 항일독립유산 가운데 화순 쌍산 항일의병유적은 국가사적으로, 광주학생운동지원지 나주역사는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조명될 것"이라며 "도민과 후손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 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모집 인원] 00명 내외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의회/공공기관 등 홍보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